
**부재산주 대상
「내 산 알기」 프로젝트**

2025. 7.

국립산림과학원

□ 추진배경

- 국내 산주의 증가에 따라 산림을 경영하지 않고 재산으로만 보유한 부재산주가 56%에 달해, 산림 관리의 어려움 발생
 - 부재산주가 소유한 산림에 대해 알고 향후 경영방법에 대한 정보습득을 통해 사유림 경영에 참여 가능
- 부재산주의 내 산에 대한 가치인식과 산림경영 기회 제공 필요

□ 추진내용



□ 추진성과 및 기대효과

서비스 컨셉 내 산(山)을 ‘알고·말기고·함께 가꾸는’ 부재산주 정책서비스

- 내 산을 알고, 말기고, 함께 가꾸는 부재산주 통합지원 서비스
 - 현장 방문이 어려운 부재산주도 온라인 정보 확인, 전문가 컨설팅, 지역 연대체 협력을 통해 손쉽게 산림의 가치를 파악하고 지속 가능한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원스톱 공공서비스
- (서비스 1단계) 정보제공 : 내산을 이해하는 첫 관문 → (서비스 2단계) 맞춤형컨설팅 : 산주 유형별 니즈에 따른 개인화된 지원 → (서비스 3단계) 협력 실행 : 실행으로 이어지는 산림경영 실천 체계
- 국내 121만2천714명의 부재산주가 보유 산림의 가치를 인지하고 산림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관리되는 산림 면적 확대

□ 향후계획

- 부재산주 특성별 관련 산림관리 또는 경영을 위한 정보제공
- 부재산주 대상 「내 산 알기」 교육 프로그램 운영

I

부재산주 대상 「내 산 알기」 프로젝트 (국립산림과학원)

과제유형	③실행·단독과제	정책분야	기타
주관기관 (협업기관)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휴먼서비스연구과	과제담당자	하시연 연구관

1 과제 개요

- ◆ (사업목표) 부재산주가 소유한 산림의 가치를 알고 산림을 경영 기회를 제공하여 국토의 관리되는 산림면적 확대
- ◆ (수요자) 소유한 산을 방치하고 있는 부재산주 1,212,714명
- ◆ (추진기간) '24.4. ~ 7.
- ◆ (소요예산)
 - ('25) 국민디자인단 운영 10백만원(산림청 10백)
 - ('25) 성인대상 산림교육 현장 적용 20백만원 (국립산림과학원 20백)
- ◆ 과제 추진 주체로서 국민정책디자인단 개념을 이해하고 서비스디자인 과제 운영 프로세스를 적용하여 수요자 측면에서 부재산주관련 문제 분석 및 개선방안을 모색
 - (발견단계) 방치산주를 포함한 정책 대상자의 인식을 이해하고,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실질적 참여를 유도. 현장에 찾아가 대상자의 인터뷰 문제 파악.
 - (정의단계) 각기 다른 수요자의 시각에서 **현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정책목표 설정**
 - (발전단계) 디자인단 참여자들간의 **브레인스토밍 및 아이디어 시각화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최종 정책 실행방안 마련**
 - (전달단계) 실행방안이 향후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후속절차 추진(정책결정권자 방침, 예산 편성, 관련기관단체의 역할과 임무 부여 등)

2

추진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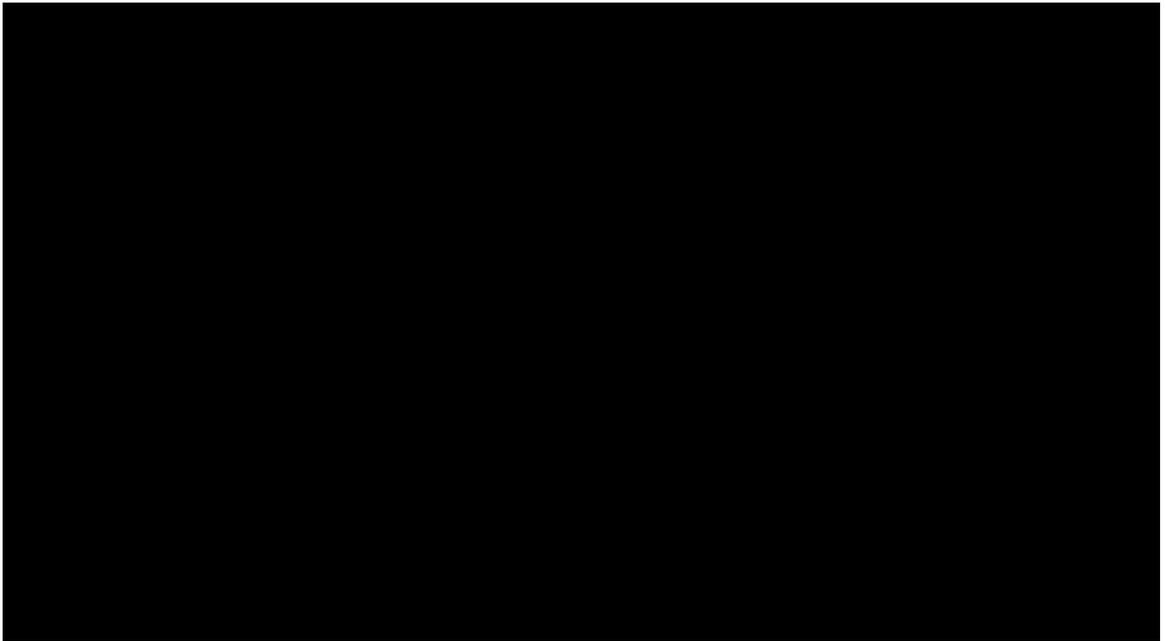
- 부재산주가 재산으로만 소유한 산림의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기회 제공
- 부재산주에게 산림경영 방법·지원 정보제공으로 국토의 관리되는 산림면적 확대

□ 개인이 소유한 산림, 사유림의 부재산주와 필지 수의 지속적 증가

○ 부재산주는 소유한 산을 재산으로만 소유하고 있으며, 별도의 산림 경영을 하거나 또는 관리하지 않는 산주를 의미함

- 우리나라 성인인구 100명 중 6명이 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6명 중 3명이 소유한 산을 관리없이 방치하고 있음.

※ 부재산주 : 사전적 의미는 산림과 멀리 떨어져 사는 산림소유자를 의미 하며 반대 의미로는 소재산주가 있음.



출처 : 산림청

○ 부재산주 수는 지난 20년간 ('05년) 45.4%에서 ('23년)55.8%으로 증가

- 2023년 말 기준 국내 부재산주는 121만2천714명으로 전체 산주 (217만2천356명)의 55.8%를 차지

- 필지수는 지난 20년간 ('05년) 384만개에서 ('23년) 492만개로 증가
 - 소유한 산림의 재산상속 과정에서 필지가 분화되어 수가 증가
 - 1ha(약 축구장 1개) 이하의 산림을 소유한 산주가 전체 산주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그 수가 증가 하고 있음.

□ 소유 산림에 대한 무관심으로 관리없이 방치되는 산림의 증가

- 소유한 산림의 산지특성 등 가치 파악, 관련 사업에 대한 무관심
 - 직접 구매가 아닌 재산상속에 의한 보유 등으로 인해 소유 산지에 대한 확인 및 가치평가 미흡
 - 개발호재 등에 대한 기대와 소규모 면적의 낮은 세금으로 특별한 관리 또는 산림경영 등의 관련 활동 부재
 - 방치되는 산림의 증가로 산림의 효율적 경영관리의 어려움 발생
 - 부재산주로 인해 신속한 방제, 재난에 대비한 임도 확충의 어려움
- ※ 부재산주 외면속 재선충병 고사목 2년째 방치(강원일보, 2024.11.20.)
 대형산불 조기 진화에 꼭 필요한데...임도 왜 부족할까(중도일보, 2023.0404.)
 부재산주 급증으로 산림 방치...경영활성화 위한 대형이벤트 개최(연합뉴스, 2025.02.26.)

□ 부재산주의 내 산에 대한 가치인식과 경영 기회 제공 필요

- 소유 산림의 산지구분 등 특성 파악을 통해 소유 산림의 가치 및 가능한 산림경영 활동에 대한 인지 기회 제공 필요
- 사유림 경영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 등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해 부재산주의 산림경영 기회 제공

가. 국민디자인단 구성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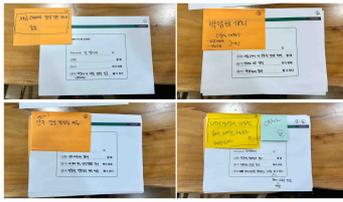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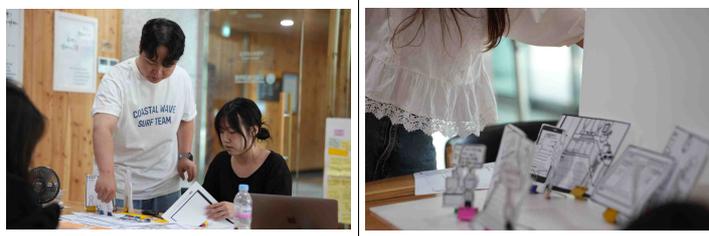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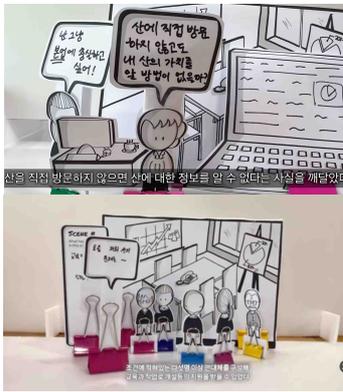
구분	성명/소속/직위	역할	
국민	분야전문가	원현규 (국립산림과학원/연구관)	• 분야 전문지식 및 경험제공
		이정미 (돈암촌영농조합법인/대표)	
	정책수요자	고대현 (에코샵홀씨 / 대표)	• 정책 수요자로서 고충, 문제점, 아이디어 제안 등 실질적인 의견 제안
		박재인 (일반인)	
		최재혁 (일반인)	
		김승현 (일반인)	
		노은수 (강원대 / 학생)	
		서아니사예린 (정화예대 / 학생)	
박주윤 (정화예대 / 학생)			
서비스디자이너	정영국(디머스/대표)	• 서비스디자인 방법을 통해 과제수행을 총괄 기획·운영	
공무원	공공서비스 디자인 담당	박현정 (국립산림과학원 / 주무관)	• 협업과제 추진상황 및 사후 관리 총괄
	사업담당	하시연 (국립산림과학원 / 연구관) 김성학 (국립산림과학원 / 연구사)	• 정책설명, 과제추진, 이해관계자 참여협조, 활동결과 이행

국립산림과학원 공공서비스디자인단 구성원



나. 국민디자인단 활동 내용

단계별	주요 활동내용	산출물
<p>이해하기</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p>① 공공서비스디자인 소개 및 정책디자인 위한 공감대 형성 ② 문제 공감 및 이해관계자 살피기</p>	
<p>발견하기</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p>① 이해관계자맵 : 예상되는 문제를 중심으로 핵심대상자와 직간접이해관계자 작성 ② 프로토 퍼소나 : 이해관계자를 중심으로 예상되는 문제를 구성하여 빠르게 가상의 정책대상자 모델 작성</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p>① 심층인터뷰: 춘천솔바우 마을에 방문하여 부재산주와 산주를 직접 만나 심층인터뷰</p>	

단계별	주요 활동내용	산출물
정의하기	 <p>① 진짜문제찾기(POV): 심층인터뷰를 바탕으로 산주들의 실제 문제를 공감하고 문제 재정의</p>	
발전하기	<p>① 아이디어 워크숍 : HMW질문으로 아이디어 발전시키기</p>	
전달하기	 <p>① 서비스 시나리오 :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정책 시나리오를 작성 ② 프로토타이핑 : 페이퍼 프로토타이핑을 만들어 정책 시나리오를 검증</p>	

□ 이해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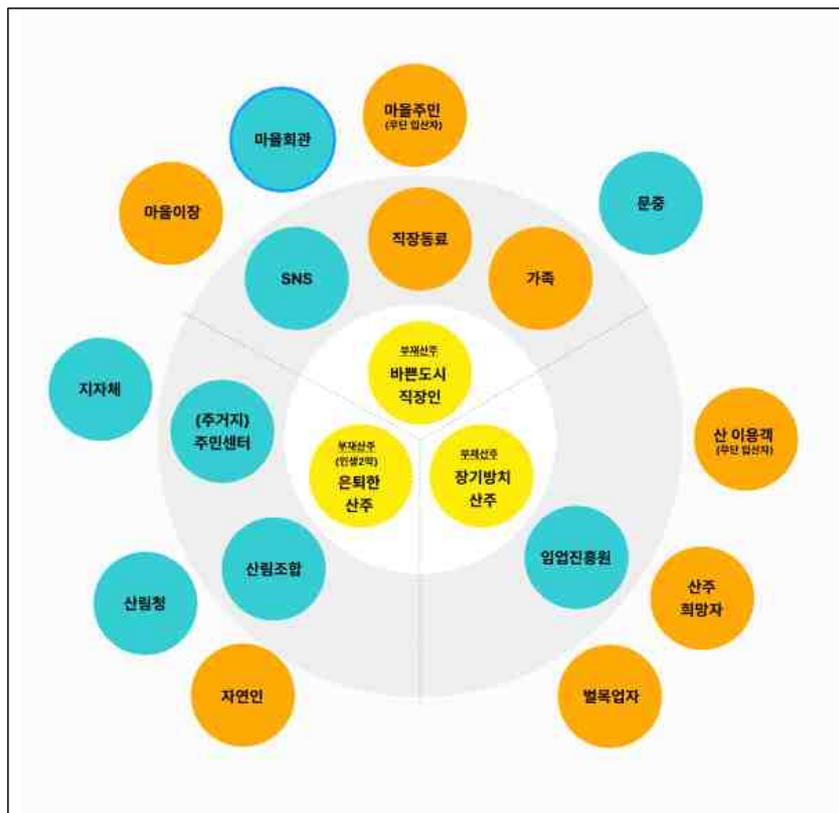
○ 친화도맵(Affinity Diagram)

- 국내 부채산주에 대한 현 실태를 공감하고 이와 관련한 문제점을 자유롭게 소통하여 친화도맵을 통해 국민과 공무원이 함께 문제 해결



○ 이해관계자 맵

- 참여 국민들과 공무원이 함께 문제속에서 고충받는 정책대상자를 유추하고 부재산주에게 직접/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사람 및 기관을 작성
- * 핵심대상자: 바쁜도시 직장인, 은퇴한 산주, 장기방치 산주
- 직접이해관계자 : 직장동료, 가족, 임업진흥원, 산림조합, 주민센터
- 간접이해관계자 : 마을이장, 마을회관, 마을주민(무단입산자), 문중, 산 이용객, 산주 희망자, 벌목업자, 자연인, 산림청, 지자체



○ 프로토타입 피소나 작성

- 선별한 핵심대상자의 이름, 성별 등 기본정보를 가정하고 그들의 행동 특성 및 고충을 예상하여 피소나를 작성

프로토타입 피소나

은퇴한 산주	도시청년 산주	장기방치 산주

□ 발견하기 (현장 사파리 및 심층 인터뷰)

- 프로토타입 피소나로 수요자의 가설을 세우고 이를 바탕으로 인터뷰 질문지를 작성하여 수요자의 문제를 접근하고 증명
- (춘천솔바우마을 방문) 이해관계자를 기준하여 춘천 솔바우마을을 방문하여 산주를 만나 심층인터뷰

춘천 솔바우마을 방문(산주 심층인터뷰) 5.28		
춘천 솔바우 마을 방문	산주 심층인터뷰 1	산주 심층인터뷰 2
산주 심층인터뷰 3	산주 심층인터뷰 4	춘천 솔바우 마을 방문

○ 산주대상 심층인터뷰 주요내용 및 결과

Q. 산주가 작업로에서 겪는 가장 큰 불편은 무엇인가요?

▶ 내 땅에 들어가는 길이 없다는 점입니다. 남의 땅을 거쳐야 하거나, 진입로 자체가 없어 산불 대응이나 자재 반입이 어렵습니다.

Q. 작업로 개설이 어려운 현실적 이유는?

▶ 중장비(굴착기 등) 구매 부담과 복잡한 인허가 절차, 그리고 전문가 도움 부족입니다.

Q. 작업로가 없어 발생하는 주요 피해는?

▶ 산불 시 초동 대응 불가, 작물 수송 어려움, 경영 효율성 저하 등이 있습니다.

Q. 기존 산림 교육에서 느끼는 한계는?

▶ 산림교육을 진행하는 장소가 어디인지를 잘 모릅니다. 가까운 곳에서 교육을 받고 싶습니다.

Q. 산주가 원하는 교육 방식은?

▶ 현장 경험이 풍부한 멘토의 실전 노하우 전달입니다. 책보다 사람에게 배우는 방식을 선호합니다.

Q. 왜 멘토링이 꼭 필요한가요?

▶ 토질, 환경, 병충해 등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답은 없고 경험에서 나오는 유연한 대응 방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작업로는 '들어가지 못하는 내 땅'의 문제이고,
멘토링은 '배워도 모르는 산림 경영'을 현실로 바꿔줄 열쇠

○ (도시청년 산주) 산주 자녀 또는 청년산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 진행

도시청년 산주 심층인터뷰 5.19		
		
청년산주 심층인터뷰 1	청년산주 심층인터뷰 2	청년산주 심층인터뷰 3

○ 청년산주 대상 심층인터뷰 주요내용 및 결과

Q. 산을 갖고 있다는 건 언제 알게 됐어요?

▶ 보통은 부모님이 말씀해주거나, 상속받을 때 처음 알게 됐다고 해요. 최근에 알게 된 경우가 많아요.

Q. 산을 어떻게 활용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해보셨어요?

▶ 솔직히 수익도 불확실하고, 규제도 많고, 상속세도 신경 쓰이다 보니 딱히 뭘 해보려는 마음은 없어요. “수익률만 좋으면 생각은 해볼 수도 있다” 정도예요.

Q. 산 관련 정보는 어디서 얻으세요?

▶ 대부분은 부모님이나 지인을 통해 들었다고 하고요, 임업진흥원 홈페이지 들어가 본 적 있다는 사람도 있었어요.

Q. 정부 제도나 혜택에 대해선 어느 정도 알고 계세요?

▶ 잘 모른다는 분들이 많고요, 그나마 세금 감면이나 투자 반반 지원 같은 것 정도만 들어봤다고 하셨어요.

Q. 산주 관련 정보(세금이나 지원 같은 것)는 어떻게 받는 게 편하세요?

▶ 젊은 분들은 이메일이나 카카오톡,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자주 보는 채널이 좋다고 하고요, 부모님 세대는 우편이 더 편하다고 하셨어요.

대부분의 산주는 자신의 산에 대해 모르거나 관심이 없으며, 정보 부족과 단절된 전달 방식이 참여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

	수요자 문제 발견 전	수요자 문제 발견 후
은퇴한 산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에 대한 경영의지가 없음 • 산에 대한 정보나 노하우 없음 • 교육받기 귀찮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에 대한 경영의지 있음 • 임업 경험자의 멘토링 필요 • 작업로 개설이 가장 필요
도시청년 산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림경영 시작이 막연함 • 본업에 충실. 매매/임대 원함 • 산림교육의 시간과 장소의 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유산에 가기 번거로움(다른 사유지 경유) • 임업은 장기투자로 경영자체가 부담 • 정부지원금 관심도 없음 • 산을 상속받으면 오히려 부담
장기방치 산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 산의 가치를 모르겠음 • 내 산의 전문적인 평가원함 • 부업으로 산을 통한 소득창출 기대 • 꾸준한 A/S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업투자에 대해 회의적 • 정부정책은 특정 대상에 맞춰있어 산주 개개인 상황과 현실에 맞지 않음 • 임업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수익 창출이 어려움

□ 정의하기 : 문제의 재구성

- 산주 심층 인터뷰를 바탕으로 피소나 및 수요자 문제 재구성
- 피소나 재구성 1

은퇴한 산주: 나경영



나고민 (70 세,남)

직업 : 전직 공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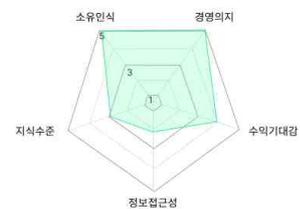
가족 : 슬하 2남 1녀

특징 : 읍내 아파트 거주
5ha 보전산주

"산에 작업로를 만들어줘야"

Needs & Pain point

- 임업을 운영하는 경험자의 멘토링 필요
- 작업로 개설이 가장 필요
(작업로가 있어야 본인산지로 진입 가능)
- 산림조합에서 간벌(숲가꾸기)지원이 필요
(그들은 확보하되 지나갈 통로 마련)
- 임업 교육에 대한 홍보가 부족
(홍보가 먼단위까지 들어가야 실제 산주들이 교육에 접근 가능)
- 본인 산지가 어떤 임업을 운영하는지 적합한지
알 있어야 함(진정한 의미의 내 산 알기)



소유인식: 산의 존재 및 법적 소유 상태에 대한 자각 수준
경영의지: 직접 산을 관리하거나 활용을 의지가 있는 정도
지식수준: 산림 제도, 경영, 활용에 대한 실질적 이해 수준
수익기대감: 산을 통한 경제적 수익 창출에 대한 기대 수준
정보접근성: 필요한 정보를 '언제, 어디서,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

1. 상속

- 언젠가는 해야하지 않을까? 하지만 자녀들이
서울에 있고해서 당장은 상속은 할 수 없음
- 가치가 높지도 않아서

2. 경영

- 대리로 산을 관리해주는 정부 정책이 있으나
이용은 하고 있지않음

수요자의 이야기

- 처음에는 내가 산주라는 사실을 알고 임업을 시작해보려 했다. 하지만 소유한 산까지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없어 시작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후 산림조합의 도움을 받아 작업로를 개설한 덕분에 비로소 임업에 발을 들일 수 있었다. 그렇게 막연한 기대를 안고 시작했지만, 정착 후에는 또 다른 현실적인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었다. 야생동물들이 작물을 파먹어 큰 피해를 입는 것이다. 발농사처럼 농약을 칠 수도 없고, 산림은 대응 방법이 제한적이라 속수무책이었다. 이런 시행착오를 누군가 미리 알려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다. 모든 걸 처음부터 혼자 감당하려니 참으로 힘든 여정이었다.

- (은퇴한 산주) 경영의지가 있는 나경영씨는

(Needs) 임도에서 자기 산까지 작업로 개설을 원합니다.

(왜냐하면) 산림을 경영하며 수익을 내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 산까지 진입할 작업로도 없고 작업로 개설비용이 부담되어 내 산 경영이 어렵습니다.

(놀랍게도) 관련지원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농지경영보다 산림 경영을 선호합니다.

진짜문제정의 (POV)

산주는 경영에 의지와 관심이 많지만 내 산까지 진입할 작업로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 (*농지경영은 논밭사이 길을내지만 산의 경우 길을 따로 내지 않기 때문에 내 산까지의 진입 자체가 어려워 경영이 어려움)

- 피소나 재구성 2

도시청년 산주: 나신도시



나신도시 (32 세,여, July)

직업: 중소기업 대리
가족: 2남1녀 중 장녀
미사 오피스텔 거주, 인서울

“산을 팔고 싶어요!”

Needs & Pain point

- 다른 사유지를 지나가야해서 소유산에 가기 번거워요
- 재산세 상속세에 대해 잘 몰라요. 상속받거나 가지고 있으면 더 부담될 것 같아요
- 임업은 시간도 오래걸리고 경영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에요.
- 정부지원을 받고있지 않는데 관심도 없어요
- 직불금이란 제도를 처음 알았는데 산림을 소유한것만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흥미를 느껴요.
- 1ha 미만이라 대상자는 아니라 아쉽네요



소유인식: 산의 존재 및 법적 소유 상태에 대한 자각 수준
경영의지: 직접 산을 관리하거나 활용할 의지가 있는 정도
지식수준: 산림 제도·경영·활용에 대한 실질적 이해 수준
수익기대감: 산을 통한 경제적 수익 창출에 대한 기대 수준
정보접근성: 필요한 정보를 '언제 어디서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

수요자의 이야기

- “도시에서 살면서 늘 공기와 집값에 치이고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고향의 임야를 물려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솔직히 너무 막막해요. 저는 나무 키우는 법도 모르고, 벌목도, 등기 절차도 하나도 몰라요.”
부모님으로부터 지방의 임야(산)를 물려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진지하게 고민해본 끝에 상속을 망설이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요즘 산에서 돈 벌 수 있다더라”, “나무 심고 탄소배출권 받으면 돈 된다더라”고 하지만, 실상은 너무나 복잡합니다.

- (도시청년 산주) 산을 팔고싶지만 정보가 부족한 나신도시는 (Needs) 온라인으로 산을 매매하여 수익을 내고싶어합니다. (왜냐하면) 땅을 팔고싶지만 직접 밭품팔기는 번거롭습니다. (하지만) 본업에 집중해야하고 산을 경영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놀랍게도) 산에 대한 관심은 있고, 수익이 나온다면 경영할 마음이 있습니다.

진짜문제정의 (POV)

청년산주는 수익이 나온다면 내 산 경영에 관심이 있지만 정보가 부족하고 도시 거주자로 내 산의 접근성이 떨어짐

- 피소나 재구성 3

장기간 산을 방치한 산주: 장방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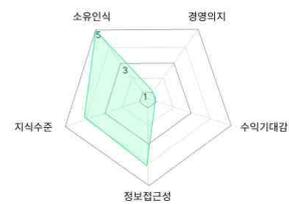
장방치 (60세, 남)

직업 : 은퇴산주

“산으로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관리도 힘들죠.”

Needs & Pain point

- 나무는 수익화에 시간이 오래걸려요
- 임업의 경제적 가치보다는 투기로써의 가치
- 임업에 대한 메리트가 부족해요 (산에서 키우는 작물은 밭에서도 가능)
- 지속적인 관리 지원사업이 필요해요
- 정부의 산림·임업 정책은 주로 다수를 위한 편의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정작 각 산주 개인의 상황이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은 부족해요.



소유인식: 산의 존재 및 법적 소유 상태에 대한 자각 수준
 경영의지: 직접 산을 관리하거나 활용할 의지가 있는 정도
 지식수준: 산림 제도·경영·활용에 대한 실질적 이해 수준
 수익기대감: 산을 통한 경제적 수익 창출에 대한 기대 수준
 정보접근성: 필요한 정보를 '언제 어디서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

수요자의 이야기

- 임업에 도전했지만 몇 차례 실패를 겪은 후 결국 산을 방치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는 개인적으로 나무를 채취하며 최소한의 관리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과정을 겪고 나니, 역시 산은 임업보다는 투기 목적으로 여겨지는 현실이 쓸쓸하게 다가옵니다. 현재는 국가지원을 받아 산을 관리하고 있지만, 정부의 산림지원 정책에 대한 신뢰는 낮습니다. 대부분이 공무원의 성과 위주로 기획된 정책처럼 느껴지며, 실제로 산주들의 현실적인 필요나 어려움은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장기방치 산주) 산지개발에 관심있는 장방치씨는
(Needs) 단기적인 개발로 일시에 수익을 내고 싶어합니다.
(왜냐하면) 나름 투자목적으로 구매하여 소유하고 있기때문입니다.
(하지만) 산림경영은 시간이 오래걸려 단기수익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놀랍게도) 산림경영 정부지원사업에는 관심이 많습니다

진짜문제정의 (POV)

내 산 경영에는 회의적이지만 정부지원사업에 관심이 많음. 내 산 경영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정확한 정보부족

□ 발전하기 : 문제를 기회로

○ 핵심가치

핵심 이슈	위기를 기회로	핵심가치
산에 진입할 작업로가 없어서 경영이 어려움	연대체 구성으로 적은비용으로 작업로 개설	협력
도시거주지는 산에 접근이 어렵고 산지경영 정보가 부족	산주가 직접 산에 가지않아도 '내 산' 현황 파악	접근성
산지경영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대상에 따른 정확한 정보 부족	산과 산주에 따른 맞춤형 컨설팅 교육	역량강화



부재산주의 산림경영 참여로 산림의 경제·사회·생태적 가치를 지속적 상승

□ 전달하기 : 페이퍼 프로토타입 제작 및 검증하기

- 정책 아이디어 도출 이후, 유형별 산주(은퇴한 경영 산주, 도시청년 산주, 장기방치 산주)의 니즈를 반영한 정책 시나리오를 구체화
 - 각 유형별 문제 구조와 사용자 여정을 바탕으로, 실제 경험 흐름을 설계



- 시나리오 기반으로 서비스 접점을 시각화한 페이퍼 프로토타입 제작하고 페이퍼 프로토타입을 활용한 내부 시뮬레이션 및 피드백 진행



- (주요 검토 항목) 정보 전달의 접근성, 단계별 흐름의 자연스러움, 서비스 참여 유도 여부 등
- 국민디자인단 참여자들이 프로토타입을 직접 만들고 실제 사용자 역할을 맡아 시나리오 체험
- 수요자의 입장에서 정책 서비스가 어떻게 전달되고 체험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점검

4

공공서비스디자인 운영 성과

서비스 컨셉

내 산(山)을 '알고·맡기고·함께 가꾸는' 부재산주 정책서비스

부재산주 맞춤형 산림경영 서비스 | 내산알기



내 산을 알고



맡기고



함께 가꾸는

- (내산알기 서비스) '산을 알고 → 맡기고 → 함께 가꾸는' 부재산주 맞춤형 산림경영 지원서비스로 부재산주가 자신의 산림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산림 경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통합 지원 서비스
 - 정보 부족, 물리적 거리, 제도적 복잡성 등으로 인해 관리되지 않고 방치된 사유림 문제 해결을 위해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산림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지원
 -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개인 상황에 맞는 조언과 계획 수립을 돕고, 지역 연대 기반 실행 지원체계를 통해 실천까지 연계
- (서비스 블루프린트)

	정보제공	맞춤 컨설팅	협력 실행	
고객행동	산림 정보 검색	플랫폼 접속	전문가 상담 신청	
사용자 터치포인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림정보 플랫폼 부재산주 안내 리플렛 문자 알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식 플랫폼 웹사이트 QR코드 접속 재산세 고지서 동봉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담 신청서(온/오프라인) 문자/이메일 신청 링크 지역 산림정보 홍보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 참여 교육 현장 온라인 교육 플랫폼 멘토링 안내 문자 및 전화
가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업을 통해 작업로 개설 장비 대여 등 실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자체 담당자 연락처 산림청 협업 안내 브로셔 현장 상담 워크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비 대여소 안내표지 장비 예약 시스템 안전 교육 리플렛 및 체크리스트 	
운영 프로세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림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정보 항목별 분류 체계 설계 및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플랫폼 UI/UX 개선 및 운영 관리 재산세 고지서 연계 송출 시스템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림 전문가 확보 및 연계 체계 구축 상담 신청 접수 시스템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 콘텐츠 기획 및 커리큘럼 설계 멘토링 매칭 운영 체계 마련
지원 프로세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식 정보 플랫폼 연동 및 자료 업데이트 리플렛, FAQ 등 안내자료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웹사이트, QR코드, 문자 알림 등 플랫폼 접점 설계 이용자 맞춤형 콘텐츠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담 가이드북 및 신청서 양식 제공 전문가 DB 및 예약 시스템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자료, 실습 키트, 평가표 등 콘텐츠 제공 교육기관과 협약 및 일정 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자체 및 산림청 협업 프로세스 설계 작업로 개설 인허가 절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비 대여 및 공유 시스템 구축 이력 관리 및 안전관리 체계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작업로 설계 매뉴얼, 협약서 양식 제공 사업 예산 계획 및 협력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비 사용 매뉴얼 및 보험 안내문 제공 예약 시스템 및 공동 이용 기준 설계 			

□ [서비스 1단계] 정보제공 : 내 산을 이해하는 첫 관문

- (특징) 부재산주가 자신의 산림을 처음으로 이해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위치, 특성, 가치, 제도 정보를 통합적이고 직관적으로 제공하는 단계임. 디지털 플랫폼과 오프라인 안내 채널을 통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음.
- (핵심목적) 부재산주가 자신의 산림 위치와 기본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돕고, 그를 통해 지금까지 관심을 두지 않았던 ‘내 산’에 대해 인지하고 이해하며, 자발적으로 산림경영 참여를 탐색할 수 있는 첫걸음을 마련하는 데 있음.



정보 접근 채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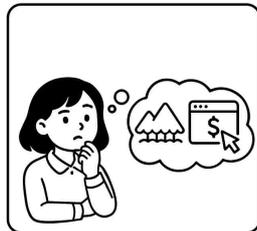
- 디지털 플랫폼 (웹사이트)
 - 사용자는 주민번호 또는 지번 입력으로 산림 정보를 조회
 - 지도 기반 인터페이스를 통해 직관적 정보 탐색 가능
- 비대면 접점 리플렛
 - 재산세 고지서에 동봉, QR코드로 플랫폼 바로 연결
 - 고령자 대상 ‘내 산 체크리스트’ 포함
- 문자/이메일 알림 서비스
 - 산림정보 변동사항(예: 경영계획 수립 대상 포함 시) 알림
 - 상담 유도 메시지 포함

- 도시청년 산주가 상속받은 산이 어디에 있는지 몰랐던 경우

정보접근 시나리오



① 나신도시씨는 세금 계산서를 보고 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② 내가 직접 가지 않아도 내 산을 알 수 없을까? 임지를 사고 팔 수 있는 플랫폼을 희망하게 된다.



③ 스마트폰으로 찾아 봤더니 산림청에서 방치산주들을 위해 구축해 놓은 플랫폼이 있었다.



④ 플랫폼에는 임도 유무, 제한시설 유무 등의 정보가 있어 내 산의 가치를 쉽게 알 수 있었다.

□ [서비스 2단계] 맞춤형컨설팅 : 산주 유형별 니즈에 따른 개인화된 지원

- (특징) 부재산주의 상황과 관심도에 따라 적합한 산림경영 정보를 제공하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실질적인 실행 방향을 함께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개인 맞춤형 상담 서비스
- (핵심목적) 부재산주가 자신의 상황에 맞는 산림경영 방향을 전문가와 함께 찾고 실행 가능성을 구체화하도록 지원

정보 접근 채널



- 산림정보 플랫폼 내 상담 신청 기능
 - ‘내 산’ 조회 후 바로 상담 신청 가능
 - 산주 유형에 따른 맞춤형 추천 항목 제공
- 문자 링크 및 QR 안내
 - 맞춤형 문자 발송 + 상담 신청 링크 연동
 - 리플렛, 교육안내서 등에 QR코드 삽입
- 지자체 및 현장 접점 연계
 - 산림조합중앙회, 주민센터, 산주대회 등에서 신청 유도
 - 오프라인에서도 참여 가능한 구조 마련

- 장기 방치된 산을 보유한 산주가 수익은 바라지 않지만 활용은 하고 싶은 경우

맞춤컨설팅 시나리오



① 세금고지서와 함께 동봉된 산주대회 리플렛을 발견한다



② 산주대회에 참가한 장방치씨는 산주대회에서 진행되는 부재산주대상의 맞춤형 컨설팅을 받는다



③ 컨설팅을 받은 장방치씨는 대리경영을 맡기로 결정한다



④ 대리경영에 성공한 장방치씨는 직접경영에도 흥미를 갖게 되었다

□ [서비스 3단계] 협력 실행 : 실행으로 이어지는 산림경영 실천 체계

- (특징) 산주가 실제 작업로를 개설하고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 전문가, 공동체와 연계해 실행 기반을 마련하며 단계별 작업 지원과 디지털 정보 시스템을 통해 현장 실행을 체계적으로 돕는 서비스
- (핵심목적) 부재산주가 혼자서는 실행하기 어려운 산림 관리 작업을 지자체, 전문가, 공동체와의 협력을 통해 실제 실행으로 이어지도록 지원



정보 접근 채널

- 플랫폼 실행 연계 안내
 - '작업로 개설 가능 여부 등 실행 정보 확인 및 신청 연계'
- 지자체·산림청 안내 발송
 - 문자, 우편, 공문 등을 통한 실행 대상자 알림
- 현장 행사 연계 홍보
 - 산주대회 등에서 실행 지원제도 홍보 및 QR 신청 유도

- 산을 보유한 산주가 개인부담비용을 줄이고 작업로를 개설하는 경우

협력 실행 시나리오



- ① 작업로 개설을 희망하는 나경영씨, 그러나 비싼 작업로 개설 비용에 망설이게 된다



- ② 답답한 마음에 찾아간 동사무소 게시판에서 작업로 임대 사업을 보게 된다



- ③ 조건인 다섯명 이상 연대체를 구성해 교육과 작업로 개설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 ④ 마을 사람들과 합심하여 연대체를 구성해 수월하게 작업로 개설을 할 수 있었다

공공서비스디자인 운영 전(AS-IS)

유아동·청소년 대상 중심 산림교육 운영
산림생태 중심의 교육내용 운영
산림교육 인프라를 활용한 교육 운영



공공서비스디자인 운영 후(TO-BE)

부재산주 맞춤형 컨설팅 및 산림경영 참여
산림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경영 참여를 유도
디지털 플랫폼, 맞춤형 컨설팅, 연대체 지원을 통해 실행 기반 마련

5

향후 추진계획

가. 부재산주 특성별 관련 산림관리 또는 경영을 위한 정보제공

□ 부재산주의 산림경영 목표를 고려한 맞춤형 정보제공

- 지자체와 협업하여 산지의 재산세 납부고지서와 함께 산림경영 관련 정보 및 지원사업 제공

※ 산지구분 및 가치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 임업직불제·산지은행제도·사유림 매입·선도산림경영단지·임업경영체 등록 등에 대한 정보 제공

□ 산림경영 관련 지원사업 정보 제공을 위한 플랫폼 구축

- 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사유림 경영활성화 관련 정보와 지원사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플랫폼 구축
- 부재산주의 산림경영 목표 및 단계별 지원사업 링크를 통한 공백 없는 정보제공

나. 부재산주 대상 「내 산 알기」 교육기회 제공

□ 평생학습기관(서울시민대학) 연계 연계 부재산주 대상 교육 운영

- 정책수요자인 국민들의 접근성이 높은 평생학습 기관내 부재산주 대상 산림교육 강좌 개설
- 사유림 경영활성화는 내 산을 아는 것부터 시작하여 산림경영의 현장 견학 등을 포함한 강좌 개설
 - 산림청의 산지정보·공간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내 산의 위치, 수종, 영급 등을 파악할 뿐 아니라 직접 소유 산림을 방문
 - 산림경영 목표에 따른 사유림 경영 현장 견학 등의 교육 제공

□ 「대한민국 산주대회」를 통한 220만 산주 교류 활성화

- 비형식적 교육으로 「대한민국 산주대회」에서 산주를 위한 임업 정보와 산림경영우수사례 교류
 - ※ 2025년 「대한민국 산주대회」: 1980년 이후 45년 만에 개최하여 전국 3천 800여명의 산주에게 산림경영에서의 산주의 직·간접 참여를 유도
- '26년 산주대회에서는 산림을 방치하고 있는 부재산주 대상 맞춤형 산림경영컨설팅 부스 운영
 - 「대한민국 산주대회」 개최 관련하여 재산세 납부고지서 동봉 및 SNS 등을 이용한 활발한 홍보 진행

주요 운영 방안	자원 운용 (인력, 예산, 조직법령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유림 산림경영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정보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림청 기관별 사유림 경영 지원제도 및 관련정보 리플렛 취합 • 지자체 협조를 통한 재산세 납부고지서 발송시 리플렛 동봉 • 산림의 유산상속 절차시 관련 정보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주를 위한 맞춤형 단계별 정보 플랫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별 지원사업 및 관련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 • 별도 플랫폼 구축보다 산림청 누리집내 페이지 구성 후 관련 정보 링크를 통한 예산 절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학습 연계 부재산주 교육 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산림과학원 성인 대상 산림교육 확대 연구의 일환으로 교육모델 개발 • 서울시민대학 연계 부재산주 대상 교육강좌 (9월) 개설 운영 및 현장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민국 산주대회」 홍보 및 부재산주 컨설팅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재산주를 대상으로 하는 「대한민국 산주대회」 이벤트 홍보 • 산주대회 내 부재산주 컨설팅 운영

첨부1

공공서비스디자인 활동 및 홍보 실적

□ 공공서비스디자인 활동 실적

구분	일시	장소	참석자	주요 활동 내용
1차	25년 4월30일 14:00~17:00	국립산림과학원 회의실	국민디자인단 8명, 서비스디자이너, 담당 공무원2명	① 국민정책디자인단 소개 및 우수사례 공유 ② 팀 오리엔테이션 ③ 친화도맵으로 문제 발견하기
2차	25년 5월14일 14:00~17:00	국립산림과학원 회의실	국민디자인단 7명, 서비스디자이너, 담당 공무원2명	① 프로토 퍼소나 ② 인터뷰 및 서비스사파리 준비
3차	25년 5월28일 14:00~17:00	춘천 솔바우마을 리사무소	국민디자인단 6명, 서비스디자이너, 담당 공무원1명	① 서비스사파리 ② 심층 인터뷰 리서치
4차	25년 6월 4일 14:00~17:00	국립산림과학원 회의실	국민디자인단 7명, 서비스디자이너, 담당 공무원2명	① 퍼소나 재정의 ② 아이디어션: 브레인 라이팅과 만다라트를 통해 아이디어션 발전하기
5차	25년 6월18일 14:00~17:00	국립산림과학원 회의실	국민디자인단 6명, 서비스디자이너, 담당 공무원2명	① 시나리오 및 프로토타입 실행

□ 홍보실적 및 계획

- (실적 1) 국민과 함께하는 '내 산 알기 프로젝트' 사유림 경영 활성화
나선다 (2025.4.25., 정책브리핑 등 3건)
 - 「내 산 알기」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위해 국민과 함께 정
책을 만들어 가는 공공서비스디자인 시작



○ (실적 2) 산주 없는 산, 함께 해법을 디자인하다 (2025.5.30, 서울신문 등 3건)

- 국립산림과학원이 운영하는 국민디자인단은 춘천시 사북면 솔바우 마을에서 부채산주 대상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여 사용자 중심의 공공서비스디자인 방안 도출



○ (계획1) 국민이 만든 정책으로 부채산주 대상 산림교육 시작(9월)

- 부채산주 대상 산림교육 프로그램 및 수강방법 소개

○ (계획2) 산을 가지고 있는데, 한번도 가본적이 없으시다구요(10월)

- 내가 소유한 산의 가치 및 현황을 알아볼 수 있는 사이트 소개

□ **공공서비스디자인 활동 총평**

○ (국민디자인단 참여국민: 고대현)

산림에 관심이 가득한 국민으로서 부채산주에 대한 인식과 현황을 알 수 있었고, 그에 따른 보다 나은 정책을 찾아나가는 과정이 좋았습니다. 그냥 탁!하고 정답찾기가 아니라 여러 과정을 통해 눈에 보이는 산출물을 만들 수 있어서, ‘국민들이 직접 정책을 만드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앞으로 부채산주 대상 교육에 적극 반영 부탁드립니다. 그간 모든 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국민디자인단 참여국민: 노은수)

공공서비스디자인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방치산주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를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단순히 실제 부채산주들의 행정적, 심리적 이유를 직접 들을 수 있었던 점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참여자들의 다양한 경험과 목소리를 통해 현행 제도의 한계와 개선 방향을 체감할 수 있었고, 행정기관과 시민이 함께 문제를 정의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협력의 의미와 가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문제를 사용자 중심으로 재정의해 보는 경험은 정책 디자인에 대한 시야를 넓혀 주었고, 산림경영 활성화를 위한 접근이 보다 현실적이고 세밀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 (국민디자인단 참여국민: 최재혁)

이번 공공디자인을 통해 평소 학문적으로 접근하던 부채산주 및 산주에 대한 문제를 보다 현실감 있게 고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산주, 부채산주 및 목상으로 일하시는 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문제를 단계적으로 접근하며 생각을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과정은 이번 공공디자인이 아니었다면 경험하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향후 산림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번 경험은 정말 큰 토대가 되었으며, 앞으로 남은 연구과제 기간 동안 이번 과정을 잘 담아 실체화 시키겠습니다. 또한, 이번에 참여해 주신 디자이너 선생님 및 국민분들 덕분에 제가 보지 못했던 시각에서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다시금 감사를 표합니다.

○ (사업담당자: 하시연)

생각을 펼치고 다시 정리하고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고 구체적으로 실현 방안을 만들어 가는 과정을 배우는 것이 좋았습니다. 다음에 정책을 입안할 때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자이너님께 한 수 배웠습니다.

그리고 정책수요자, 분야 전문가, 사업담당자가 함께 참여해서 더 잘할 수 있었습니다. 혼자였으면 부족함이 많았거나 실제 사업에서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진짜 문제를 정의하고 실제로 산주들을 만나서 현장의 수요를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는 무엇보다 좋았습니다.

추후에 저희가 부재산주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할 때 현장에서 파악했던 의견을 고려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디자인단의 성과를 하반기에 서울시민대학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부재산주 대상 교육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단의 성과가 어떻게 사업화 되고 반영되는지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바쁜 시간에도 불구하고 함께 참여해주셔서 감사하고, 잘 이끌어 주신 디자이너 선생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국민디자인단 참여국민: 정화예술대학 서예린)

산림과학원 공공서비스디자인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공공디자인이 어떻게 사회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를 직접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현장조사를 통해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실제 문제에 맞는 솔루션을 디자인하는 과정은 단순한 결과물 제작을 넘어 공감과 소통의 가치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

습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디자이너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다시금 고민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소통을 통해 가치를 찾아내는 디자인을 실천하고 싶다는 다짐을 갖게 되었습니다.

○ (국민디자인단 참여국민: 정화예술대학 박주윤)

산림과학원 공공서비스디자인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방치산주라는 사회적 이슈에 대해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솔바우마을에 방문하여 실제 산주분들을 만나 뵙고 인터뷰하는 과정은 산주들이 겪고 있는 실질적 문제를 체감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공공디자인이 사회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갖고, 공공과 사람을 잇는 디자인을 계속 탐구하고 싶다는 확신을 얻은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 (서비스디자이너: 정영국)

올해는 전국적으로 대형 산불이 잇따랐고, 그 원인 중 하나로 '산불 진화에 필요한 진입로 부족'이 자주 언급되었습니다. 뉴스를 통해 '왜 산에 길이 없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고, 이번 공공서비스 디자인 활동에서 그 이유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춘천 솔바우마을 인터뷰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은, 논밭처럼 사람이 다니는 길을 만드는 것이 임업에서는 결코 쉽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산림에 길을 내는 일은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의 비용과 절차가 따르며, 단순히 예산이 있다고 해서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인접 산을 지나야 하기에 타 산주의 동의가 필요하고, 이는 실질적인 실행의 장벽이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단순한 '길의 부재'는 산불 대응을 넘어 산림경영 전반의 구조적 한계로 이어지고 있음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과제를 진행하면서,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에 닿게 되었습니다. 산의 진입로 문제는 단지 접근성의

문제가 아니라, 산림경영의 기반이자 산불 등 재해 대응의 핵심이었습니다. 산에 길이 없다는 것은 곧 산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없다는 것이며, 이는 산림의 방치와 직결됩니다.

이번 ‘방치산주의 내산알기’ 과제를 통해 산의 진입로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 과제인지를 깨닫게 되었고, 이 문제는 단독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산주들 간의 협력과 연대가 함께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가능성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산에 길을 낸다’는 일의 진짜 의미와 무게를 깊이 체감하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 공공서비스디자인 과제를 통한 성과창출을 위한 제언

- 과제 발굴 단계: ‘생활밀착형 관점’에서의 문제 정의
 - 방치산주의 문제는 제도나 예산의 미비보다는 ‘정보와 동기 부족’에서 출발
 - 정책 기획 초기부터 산주 생활경험 기반의 니즈 파악이 중요하며, 단기간 설문보다 심층 인터뷰 및 참여형 관찰조사를 통해 발굴
 - 은퇴 산주, 청년 산주, 상속 산주 등 유형별 니즈와 장벽을 구체화를 통해 실효성 높은 과제 정의 가능
- 성과 확산 전략: 정책-일상 연결 매개체 마련
 - 산림정책의 ‘거리감’을 해소하기 위해 정서적 접근이 가능한 스토리 기반 콘텐츠와 시민공감형 매체(카드뉴스, 인터뷰 영상, 지역 사례집 등)로 확산을 유도
 - 재산세 고지서 동봉 리플렛, 지자체 민원창구 연계, 농협 등 지역 금융기관의 안내매체 활용 등 기존 생활 접점을 활용한 확산 전략 수립
 - 산주 간 경험 공유 등을 통해 사례 기반 전파와 자발적 참여 유도 필요
- 과제 기간 및 추진 구조: 장기적 성장 구조 설계
 - 1년 단위 단발성 사업은 산주 인식 변화 및 실천 전환의 어려움

- 최소 3년 단위 로드맵을 구성하여, ①문제 인식 → ②실천 도입 → ③지속적 관리의 순환 구조를 설계해야 하며, 중간평가와 연차별 개선계획 병행

※ 단계별 목표설정 : (1년차) 인식 제고 중심(알리기) → (2년차) 행동 전환 유도(말기기) → (3년차) 공동관리 기반 조성(함께 가꾸기)

○ **다부처 협력:** 실효적 연계 메커니즘 마련

- 산림청 단독이 아닌 행안부, 지자체, 교육부 등과의 협업을 통해 토지, 주민, 세금, 교육, 플랫폼 등과의 연계를 강화
- 산주 등록정보와 등기부 등본, 세무 정보의 연동, 복합산지 활용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 교육청·평생교육기관을 통한 산림교육 연계 등 실행력 있는 연계구조 필요
- 정책 통합 관리 전담팀(TF 또는 전담센터)을 운영하여 유관부처 간 정책 일관성과 실행 동력을 확보

○ **지속 운영 방안:** 산주 네트워크와 플랫폼 기반 마련

- 단기 정보제공이 아닌, 산주 간 커뮤니티 활성화와 자기주도적 학습 및 실천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 구축 필요
 - 예: 산림청 홈페이지 내 ‘내산알기 전용관’, 온라인 산림경영 가이드맵, 질문게시판 및 사례나눔 코너 등
- 산림경영 멘토-멘티 제도, 산주 인증제 등을 통해 자발성과 소속감을 높이고, 우수 참여자 인센티브(예: 산림관리 지원사업 우선순위 부여) 제도 연계
- 오프라인으로는 지속형 산주학교, 지역거점 ‘산주상담소’ 설치 등을 고려